

송구하게도 나는 아직 살아가는 것의 이유를 모릅니다

진정 신사로, 숙녀로
깊어 가고픈
그대들에게

이 책은 제가 SNS에 실었던 짧은 아포리즘이나 멘토링 트윗을 엮어 펴낸 『우리 이렇게 살자』의 해설판인 셈입니다. 그 짧은 트윗 글들이 만들어지고 응축되고 가슴에 새겨지기까지 내가 마주친 현실 속에서
서의 체험과 만남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감성적 터치로 글을 쓴다는 것이 나로서는 몹시 낯설고 어설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인연으로 글을 부탁받아 건네준 것들이 꽤 되었나 봅니다. 묶어 책으로 남기자는 편집자를 만난 것도 인연이다 싶어 지난 해 겨울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편집자가 모아 준 글들을 꺼내 읽으며 안식월 휴가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글이지만, 한 줌 온기를 불어넣어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려다 보니 손발이 오그라들기 일쑤였습니다. 실소를 자아내는 치기도 엿보이고 허풍 가득한 감성도 덧칠해져 있어 난감했습니다. 허나 그 모자란 모습

도 저일 거라 생각하고 아주 막되어 먹은 것 아니면 손보지 않고 그냥 부끄러운 그대로 내놓고자 합니다. 글을 다듬으면서 오래전 머릿 속에 넣어 둔 요사 부손의 하이쿠 한 편이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도끼질하다

향기에 놀랐다네

겨울나무 숲

겨울 황량한 숲 속 비쩍 말라 허접해 보이는 나무에 도끼질을 하다 나무 속 깊은 곳에 웅크린 향기와 부딪힙니다. 살아 있음의 존엄함이 고개를 내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그는 도끼질을 멈추고 나무를 부둥켜안은 채 끼이끼이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라면 울었을 것입니다. 기자랍시고 세상을 뒤적이며 다니다 부딪혀 놀라고 울컥한 것이 '살아 있음' 그것이니까요. 이 책의 글들에도 잘나지는 못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순수하고 열심이던 저의 온기나 체취가 조금은 담겨 있다 여긴 것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묶어 내놓는 변명이라 하겠습니다.

송구하게도 나는 아직 살아가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되어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 못한 채로입니다. 세계 삶은 여전히 모호하여 이유도 없이 시작해 뜻도 없이 끝나 버리는 조금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 슬프지도 않았고 또 그다지 기

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때로는 즐거웠고 때로는 아픔답기도 했으니 그거면 된 거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다만 삶에게 진지하고 싶었고 어느 순간에는 삶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음을 느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전부인 듯합니다.

어느덧 봄이 왔고 깊어 갑니다.

봄은 그렇게 떠나고 또 그렇게 올 겁니다.

어쩌다 한번은

어쩌다 잠깐은 내가 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변상욱 드림
2016년 3월 20일

CONTENTS

프롤로그

송구하게도 나는 아직
살아가는 것의 이유를 모릅니다

CHAPTER 1

길 위에서 세상을 배우다

생 말로에서 활을 쏘다
낮선 곳의 매혹 그리고 욕망
목련꽃 아래 서서
새벽 남 몰래 봄 처녀를 만나다
나는 벚꽃이 마냥 좋다
나는 꽃밭에 사노라
나는야 무더위 좋기만 하다

CHAPTER 2

어깨에 손을 올리면 가슴 아파 오는 이름

가슴 아파 오는 이름
딸과 아들에게 전하는 축지법
내 인생의 첫 주례
결혼과 결혼했다!
자식을 신사, 숙녀로 가르치고 싶다면
상처와 분노를 다스리는 법

CHAPTER 3

인생, 강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것

거지가 한 조각 빵을 쪼개 나누는……
난 무엇을 부끄러워했던가
희망이란, 본디 이런 것
마음, 마음 하나까
너나 잘난 척하지 마
사람으로 산다는 건

CHAPTER 4

나는 이렇게 듣고 배웠다

공부가 가장 어렵고 즐겁다

들꽃에도 정중(正中)이 있다

몸을 믿고 몸으로 답을 찾아야

강은 역류를 품고 흐른다

산다는 게 무얼까

바람 불면 바람 속을

다리 하나로 춤추고 다리 없이 뛴다

산에 무엇이 있냐고요?

CHAPTER 5

예술에게 인생을 묻다

구름이 묻고 산이 답하다

누가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드는가

우리의 절망과 분노가 애매했기에

정상을 밟고 또 밟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점점 팍팍해져가는 세상

CHAPTER 6

관능적인 사랑

관능적인 사랑

갇힌 사람들의 에로티시즘

그래, 인생과 그저 노는 거야

저 가을 산을 어찌 혼자 넘지?

살아 있는 것들의 공명

CHAPTER 7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여성에 눈을 뜨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신사같이 늙어 간다는 건

속절없이 나이만 먹더라도

신사다운 어른

변질된 신사와 한량

CHAPTER 1

길 위에서

세상을

배우다

별은 꽃 안에
꽃은 정원 안에
정원은 토담 안에
토담은 마을 안에
마을은 나라 안에
나라는 세계 안에
세계는 신 神 안에
그리고 그리고 신 神은
작은 별 안에

- 일본의 어느 선승 禪僧 -

생 말로에서
활을
산다



2016년 새해 첫날을 먼 이국^{異國} 낯선 곳에서 맞았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의 생 말로. 저녁에 세찬 바닷바람과 겨울비를 헤치고 몽생 미셸 수도원에 오른 뒤 근처의 가까운 중세 항구도시 생 말로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몽생 미셸은 프랑스의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수도원이자 바위섬 꼭대기에 지어진 요새이자 감옥이었던 곳입니다. 큰 밀물이 밀려드는 대^大만조 때면 바다에 잠겨 섬이 되는데 미셸 수도원이 바다에 비친 모습을 보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의 모델로 삼았다고도 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6년 작품인 루이 지코지 감독의 영화 「라스트 콘서트」 도입부에도 이곳이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듯 자리한 수도원에 하나둘 조명이 밝혀지고 주위가 어둠으로 덮여가는 광경이 멋진 거야 당연하지만 가슴에 와 닿진 않았습니다. 가톨릭 신도가 아니어서일까? 아니면 신심^{信心}이 부족해서?

그것이 중세의 휘황한 성당이든 거대한 만리장성이든 신비스러운 피라미드이든 나는 늘 그랬습니다. 하루 먹을 것 구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의 민중이 세속 권력이나 종교권력에 동원되어 쥐어짜듯 흘렸을 피땀이 떠오르며 감흥이 깨지고 맙니다. 드러난 역사 유물의 그 뒤안길을 넘겨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종교적 영성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별과 별 사이 어둠을 보라는 스승의 충고대로 살아온 탓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다란 교회 건물을 보면 쫓…… 하며 마음을 달아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맴도는 건 몽생 미셸 방문 후 저녁식사로 먹은 거품 계란 오믈렛의 비릿한 맛입니다. 계란과 크림을 머랭 치듯 휘저어 큰 거품을 일으켜 구워 낸 커다란 오믈렛은 비릿하니 별로였습니다. 남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던 카슬레(콩과 고기를 넣어 끓인 프랑스 농가에서 유래된 스튜)마저 입에 딱 맞는다고 마구 퍼 넣던 내게도 몽생 미셸의 오믈렛은 첫 순간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멀고 먼 몽생 미셸 수도원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온 수도사나 신도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거품으로라도 양을 늘린 이 오믈렛 한 조각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라 생각하니 괜히 경건해지며 한 순간 한 순간 떠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삶도 오늘의 삶도 어찌면 이리 비릿한 맛이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도 한때 수도사의 길을 로망처럼 간직했던 날들이 있었 습니다. 나는 화살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온 삶을 던져 어떤 큰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과녁에 꽂힌 화살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부르르 떨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그렇게 말입니다.

날아가 온몸을 쫓아야 할 그 목표물이 뭐냐고 물으면 그때는 거

창하게 대답했겠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활쏘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활로 설명을 한다면 독일 칸트주의 철학자 오이겐 헤리겔의 도움을 받아야 할 듯하군요. 오이겐 헤리겔은 교환 교수로 일본에 머물면서 불교의 선禪과 묵화, 꽃꽂이 그리고 궁도弓道를 배운 사람입니다. 스승을 모시고 숨쉬기와 서고 앉는 것부터 시작해 6년간 활쏘기를 익히며 배운 것을 그는 『활쏘기의 선』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헤리겔의 깨우침은 내 식대로 간추리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표적이 아니다. 당연히 명중시킨다는 건 더욱 중요할 리 없다. 명중은 그저 내가 무심無心의 경지에서 제대로 몰입했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물 중 하나일 뿐이다. 궁도에서 주체는 활도, 화살도, 목표물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행하는 행위 역시 내가 되어야 한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살아 내는 삶이 곧 나이듯이…….

활쏘기를 배우던 어느 날인가 활과 화살, 과녁,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로 엮히고 뭉쳐지면서 각각을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궁극에는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생겨났다. 아예 분별하려는 욕구마저도 사라졌다. 활을 잡고 쏘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도 맑고 명료해지면서 그저 별것도 아닌 듯 우습게 느껴지기조차 했다. 나는 그저 쏘 뿐이었다. 멋있을 필요도 없이, 명중시킬 필요도 없이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욕망도 없이.

그때야 스승은 오이젠 헤리켈에게 '자신의 한가운데를 뚫는 그것'이 바로 명중의 의미'라고 격려합니다. 그 '무위의 명중'이라는 경지는 춤에서도 드러나고 노래와 하나가 되어 가는 가인에게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종종 그 '명중'의 실체를 느껴 보지 않으셨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위의 명중이 땅을 일구고 그물을 던지고 망치질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서나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오늘도 활을 당기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당신의 과녁이 무엇이나 내게 물으면 겨우 답할 수 있는 건 나는 내 밖에 목표물을 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면 내 삶으로 그 영혼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증명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에서의 명중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자신을 찾는다고 표현하든 내 자신을 이루어 간다고 하든 기억할 것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자기 창조의 경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완제품이 되어 버린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살아 움직이고 변하는 건
우리의 숙명입니다.
포도를 수확해 으깨든
포도나무에 매달린 채로 놔두든
세상과 만난 포도는
그냥 포도로 남지 않고 술로,
술 비슷한 것으로 변해 갑니다.

죽은 듯 멈춰 있지 못합니다.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 가는 중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되려 하십니까?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구경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다른 이들을 달리 이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하죠.

낯선 곳의 매혹
그리고
욕망



흔히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 모순된 감정을 품습니다. 어떤 때는 차이를 부정하며 ‘그래 봤자 너도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며 동일시로 몰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차이를 강조하며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 방식이 옳아’라고 선을 그으려 하죠.

이 두 욕망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여행과 여행에서의 만남은 이 두 욕망을 화해시키고 균형을 잡아 줍니다. 내가 성장해 온 문화와 풍토로는 가당치 않지만 달리 살아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경험과 느낌